

學校 주변 有害업소 229곳 이전

반경 50m 內 술집·여관등

내년 8월까지
개별 관리카드 작성

市, 재수학원도 보호대상포함 추진

서울시는 24일 학교 주변 부대 반경 50m 이내 지역
의 유해업소를 위해 교내
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
위치한 유·숙박업소를 2
백 20곳을 내년 8월말까지
모두 이전 또는 폐쇄키로
했다.
시는 이들 이전·폐쇄대
상업소의 신의주점점·보장
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보
건계획위원회 개정을 문교부
에 건의했다.
시는 이들 업소의 개별
관리카드를 작성, 정화추진
상황을 기록관리하고 정
대상지역에는 학교정화구
안내표지판을 세우기로 했
다.
시는 또 정화구내 내
지업소에 전자안시계를 추
가하고 현재 유치원에서 대
학까지로 돼있는 정화대상
교육시설에 재수학원도 포
함시켜줄 것을 문교부에 요
청했다.
81년에 개정된 정화학
원관리규정에 학교정화구
내에 유·숙박업소가 있는
지역은 정화대상지역으로
관리된다.

거주지 못했다.
시는 다음달부터 구청별
교사·학부모와 합동으로 집
로 학교 주변 교육저해 환
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.

퇴폐업주 4천여명 적발

12명구속 유흥업소 2千5百곳 행정처분

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.
대학생의 상습도박

8명 영장신청

서울과야경철서는 18일 여
판에서 상습적으로 수십만원
대의 도박판을 벌인 11명 판
결을 내렸다.

공(27·서울대 체육학과 4년)
등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4
명이 20대 10명을 불쌍아
짜고 8명에 대해서는 상
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
청했다.
경찰에 따르면 짜고치는
서울대 앞 S 단거리에서 지난
달부터 일주일 이상 계속된
5월부터 일주일 사이로 17
일 밤 冠(冠)泰(泰)4등 C여관
객실에서 판돈 50만원의 포커
판을 벌이는 등 지난 7월중순
경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
 걸쳐 판돈 30만~80만원짜의
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
다.

3種郵便物(가)급認可【

10.18 東 亞 日

내부와 차안부는 17일
전국의 유·숙박업소 전자안시
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무주
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
일제 단속을 벌여 시·군·구
을 한 업소주인 1천 23명
4천 1백 30명을 적발했다.
정화구내 이들 업소주인
태영업을 한 업소주인 12명
을 구속하고 2천 2백 72명
를 구속입건했다. 2백 14명
을 즉시에 벌기는 한편 2천
5백 62개 업소에 대해서는
행정처분키로 했다.
경찰은 또 이날 불심검문
을 통해 우범자 및 기소중지
자 7천 4백 20명을 검거, 3
백 72명을 구속하고 2천 5백